

1990년대의 청년과 노래, 확장과 순환*

김병오**

1. 대학생과 청년문화
2. 대학생의 분화와 신세대론의 유행
 - 2-1 대학생의 분화
 - 2-2 신세대론의 유행
3. 노래를 통한 청년들의 대응
 - 3-1 반성과 다짐, 내부의 정비
 - 3-2 록음악, 외부로의 확장
 - 3-3 새로운 청년의 등장
4. 청년들의 노래, 확장 혹은 순환

국문요약

19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문화는 점진적으로 퇴조의 길을 걸었다. 그것은 좋음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지형 변화에 수반되는 것이었고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흐름이었다. 서사 속 청년의 계보를 잇던 학생운동 주체들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할 대상 혹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으로 파악하여 해법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세대론이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다. 신세대론을 경유한 청년들은 생산과 저항의 주체에서 소비의 상징으로 이미지가 변화해 나갔다.

청년들의 노래문화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사회적 책무를 유지하고 확장해내는 데에 노래를 통해 복무하고자 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고 새로운 취향을 받아들였으며 나아가서는 특정 음악 상품의 소비 행위까지도 저항적인 노래 문화 건설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 바깥에 있던 새로운 청년들의 노래들이 90년대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0년도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전주대학교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연구교수.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성장했는데, 이들의 음악은 청년들의 음악적 취향의 확장과 함께 다시 1970년대 청년문화로의 회귀 경향을 함께 드러냈다. (주제어: 청년, 청년 문화, 민중문화, 신세대, 취향의 변화, 록음악)

1. 대학생과 청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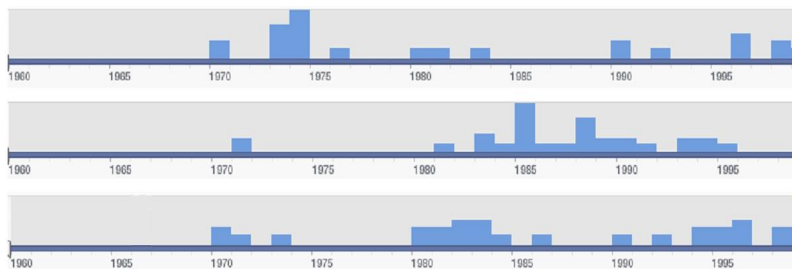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현재 청년 혹은 청년문화라는 이름을 가장 강렬하게 전유한 세대는 아마도 197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 혹은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소수의 청춘들일 것이다. 자정 넘어 통금에 단속된다 해도 이른바 ‘공순이’, ‘공돌이’들과는 달리 쉽게 용서를 받고 풀려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특권을 지니고 있던 세대들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청년 문화라는 범주를 독점적으로 전유하였고 그러한 양상은 기억으로 남은 지금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세대의 문화와 관련하여 더욱 주목받을 만한 세대는 어쩌면 1980년대의 청년들이다. 80년 5월의 광주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거대한 학생운동을 일으키고 이끌고 또 끌려 다니면서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집단적으로 활동하였고 자신들의 세대의식을 표출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절의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았고 후대에도 그렇게 기록 혹은 기억되지 않았다. 그 대신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호명되었다. 매우 평범한 표현이지만 당시의 대학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금과 온전히 같은 것은 물론 아니었다. 특히 당대의 독재정권이나 주류 기성세력에게는 더욱 그 의미가 각별했을 텐데, 그 속에는 실제로 ‘운동권’이나 ‘좌경’과 같은 의미가 강하게 새겨져 있었다. 당대의 시대적 맥락에서는 매도와 비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지금 돌아켜보면 당시 세대의 특성을 비교적 잘 드러내는 말로 느껴지기도 한다.

대학생으로 불렸던 청년들은 80년대 내내 기성 사회의 문화와 비교해서 매우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고 영위했다. 청년으로서의 그들 문화는 70년대와는 달리 청년문화 대신 민중문화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불렀다. 당사자의 취향과 문화를 지향했던 70년대의 청년문화와는 달리 80년대의 청년문화는 민중과 함께 하는 공동체문화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문

화를 후대에 청년문화로 지칭하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당사자들도 그 시절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청년문화가 아닌 민중문화로 이름 지어 불렀다. 민중문화라는 표현은 세대의 개념으로 구획하고 이해하기에 적절치 않지만 80년대에는 역설적이게도 민중문화라는 이름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구획된 당대 청년문화의 구체화된 표현이기도 했다.

청년이라는 호칭으로부터 비껴나간 것은 90년대의 청년들 역시 8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와 80년대 청년들의 문화 사이에는 그보다 더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다. 대학생, 대학문화를 통해 호명된 것은 다르지 않았으나 80년대의 별칭이었던 운동권 대신 90년대의 청년들은 신세대 혹은 X세대라는 다소 이질적인 이름을 부여받았다. 운동권과 대학문화 혹은 민중문화는 비교적 일관된 느낌을 전해주었으나 신세대와 대학문화는 호응하는 것으로도 느껴졌고 대립되는 것으로도 느껴졌다.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 주던 사람들의 위치와 세계관이 서로 달랐던 것인데, 이들의 미래를 우리 사회 미래와의 연속선상에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를 즉각적인 이윤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진 신세대 논의는 시각이 달랐던 주체들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독점하지 못했고 각각의 주체들이 이름을 불러 주었던 서로 다른 얼굴의 청년들은 그들대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다.



언론 보도 빈도 1 (검색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청년문화, 민중문화, 대학문화)¹⁾

1) www.naver.com의 옛날신문 기사DB 검색결과이다. 전체 서비스 기간은 1960~1999년까지이다. 대상 DB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등 3개의 일간지이며 각각의 검색어를 타이틀로 뽑은 기사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2. 대학생의 분화와 신세대론의 유행

90년대 이후, 청년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청년이나 대학생이라는 호칭은 그들에게 더 이상 특정한 세대적 표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청년들은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세대적 명칭 부여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그 명칭이란 대개 당사자가 아닌 기성세대들이 주창한 특정 세대로서의 청년들의 이름이었는데, 당시 널리 유행했던 신세대 혹은 X세대라는 이름 혹은 새로운 흐름이 그것이었다.

2-1. 대학생의 분화

조선민중 억만대의 광영을 위하여 우리의 고난과 박해와 기아와 추위가 필요하다면, 아! 우리의 안일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따뜻하고 배부름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구구한 애정을 버리는 것이, 헌신짝 버리는 것과 다른 바 있으리오²⁾

청년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이래 1990년대 이전까지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을 미래의 주인으로 자각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의 입을 열어 자신들의 세대를 주창하였고 책무를 강조하였다. 물론 이런 표현에는 결코 적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70년대 이전의 청년들이라는 호칭 속에는 80년대부터 그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한 민중 혹은 노동자, 농민 등의 존재가 미미했다. 청년문화라는 것은 ‘大學街와 再修路에서 뻗어 명洞과 무교洞의 既成文化地帶로 범람하고 있다’³⁾는 옛 신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주로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공장에서 일하거나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어디선가

2) 「青年의 氣概가 如何오, 無意의 生보다는 寧히 有義한 死를 取할지이다」, 『동아일보』, 1929.1.9(1면). 이기훈(2006) 359쪽에서 재인용.

3) 「거짓·安逸(안일)·상투성·沈黙(침묵)을 슬피하는「블루진·통기타·생맥주」의 青年文化(청년문화)」, 『동아일보』, 1974.3.29(5면)

부지런히 노동하고 있던 청년들은 대략 그 또래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화적 의미가 없는 거실의 벽지 같은 존재로 간주되었다. 청년문화가 요란스럽던 1975년에 이르러서도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진학률 40%를 간신히 넘기는 것이 당시 청년들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청년들에게 일종의 특권이나 특별한 책임의식이 부여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급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중학교	51.2	71.9	95.1	100.1	98.2	101.6	101.0
고등학교	28.1	41.0	63.5	79.5	88.0	91.8	94.6
고등교육기관	9.0	9.7	17.0	37.2	37.4	57.9	68.8

주 : 취학률(%) = (각급 학교 학생수) / (각급 학교 취학 적령인구) * 100
취학적령인구 = 중학교: 만12~14세, 고등학교: 만15~17세, 대학교: 만18~21세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⁴⁾

표 1) 학령인구의 각급학교 취학률 추이 : 1970~1997

하지만 90년대 이후의 세대는 경우가 좀 달랐다. 80년대 중반 이래 대학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1997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70%에 육박할 정도여서 이제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 대학생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는 호황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IMF 구제금융 사태까지 겪게 되었다. 이 와중에 청년들은 미래의 기둥 대신 이태백이라는 비하적 혹은 자조적 표현에 실려 사회의 변두리로 떠밀려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가의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의 사회적 책무와 비전을 논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으나 80년대와 달랐던 것은 그러한 논의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이념적인 사회 참여 활동에 아예 적극적인 반감을 품는 대학생들의 숫자도 대폭 증가하여 대학 사회에는 비운동권 혹은 반운동권 총학생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이전까지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지향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과로 나누어 날카롭게 대립했지만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4) 방하남(1999; 8쪽)에서 재인용.

책무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그들과 매우 다른 정체성을 지닌 대학생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공공연하게 그들 나름의 존재감을 강력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 시절부터 적지 않은 비운동권과 반운동권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에서 다수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아 이른바 ‘주요 대학’⁵⁾에서 당선되기 시작하였고 20세기가 저물 무렵에는 대학 내 학생 권력의 절반가량이 새로운 세력들의 차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비운동권, 반운동권이 총학생회를 장악했던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양상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회 선거에서의 매우 낮은 투표율, 그리고 이에 후보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학생회의 상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 청년들이 사회적 혹은 공동체적 참여에 대한 관심을 대폭 줄여 나갔고 학생회 선거에서는 심드렁한 자세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곤 했다는 것의 반증이라 그렇다. 소위 ‘주요 대학’의 경우 비운동권이 장악했던 총학생회가 다음 해에도 다시 당선되는 사례가 당시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운동권과 비운동권 사이에서 부유하며 투표를 던지는 익명의 다수 학생들의 존재감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대학생들은 운동권과 운동권에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그것 자체에 관심 없는 이들로 크게 분화되었다고 봐야 하며 특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역설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새로운 대학생들은 학교 비싼 비평가들에 의해 부정적인 맥락에서 탈정치, 소비문화, 개인주의 등의 가치들로 연계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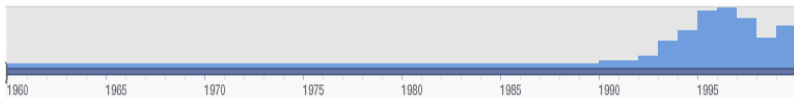
한편, 청년들의 분화 혹은 변화 과정에서 이들의 성격에 대한 구조적 해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포디즘 논의를 경유하는 방법이다.⁶⁾ 90년대의 청년들은 80년대 후반 포디즘 체제에 의해 구현된 소비사회 기반에서 그 풍요를 본격적으로 누리는 세대였다. 과거에 비해 소비 능력이 대폭 향상된 세대로 성장하고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능력, 소비 습관 자체가 과거 청년들과 달랐다는 것이 변화상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거시 경제적 차원 외에 사소하게는 과의 허용이나 카드의 무차별

5) 당시 학생운동 세력들은 특정한 학교들을 일러 ‘메이저캠[Major Campus]’이라 불렀다.

6)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포디즘 체제에 대한 이해는 백옥인(2008)을 참조하였다.

발급 등 당시 청년들의 탈정치, 소비 중시 풍토를 가능케 했던 단발적 사건들도 있었다. 1989년 2월에는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과외가 전면 허용되면서 일부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호전되었다. 과외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게 된 대학생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소비에 나섰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카드 회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카드 남발을 자행했는데, 이 때 대학가에도 이러한 경향이 흘러들었고 아무런 신용 능력이 없던 학생들에게도 카드가 발급되었다. 대학생들이 카드빚으로 자살을 하는 등 많은 비판거리를 낳으면서 1994년 10월에 무조건적인 카드 발행이 중지되었다. 카드를 손에 쥔 대학생 역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존재가, 원한다면, 될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경제 능력이 월등해진 청년들의 소비 생활은 이전 세대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 전통이란 마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으므로 이 세대의 변신이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2-2. 신세대론의 유행



언론 보도 빈도 2 (검색어: 신세대)

대학의 바깥에서는 1987년 이후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신세대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6월 항쟁 1주년을 계기로 한국일보가 1988년 6월부터 1년 4개월에 걸쳐 신세대 시리즈를 대형 기획보도로 내어 놓은 것⁷⁾을 비롯하여 1989년 이래로는 각종 광고를 통해 신세대라는 수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었다.⁸⁾ 패션 상품을 비롯하여 프린터, 온돌, 선반(旋盤)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술 혁신 제품이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또한 1992년 상반기에는 조선일보에서 ‘신세대 공무원’ 시리즈를 2개월에 걸

7) 「70년대생 신세대 X세대... 이름도 가지가지」, 『한국일보』, 2004.3.18. 기사 참조

8) www.naver.com이 제공하는 옛날신문 DB의 광고 지면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쳐 기획기사로 보도하였고 「신세대의 의식구조 실태」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직 문화 캠페인에 활용하였던 한국은행과 같은 관공서의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1992년 하반기에 벌어진 미국과 한국의 두 차례 대통령 선거는 신세대라는 단어의 유행에 좀 더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⁹⁾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신세대 지도자라는 이름을 걸고,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신한국 건설의 구호를 내걸고 각각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87년 항쟁을 통한 전 사회적 세대교체 혹은 세대교류와 ‘신(新)’이라는 접두어를 전면에 내건 초대형 이벤트 두 건을 경험하면서 신세대라는 이 시기의 유행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94년 초부터는 X세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데 이는 대체로 신세대라는 말과 특별한 구별 없이 혼용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⁰⁾

신세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비교적 일정한 연령대를 지칭하게 되었을 때, 대학가에서는 신세대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조금 다른 양상의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흔히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1993)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진지한 의미의 신세대론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대학가에서 진지한 톤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신세대론은 80년대의 대학생, 70년대의 청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실천의 일환이자 학생운동에 대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80년대 내내 정치적 자유의 공간, 불의에 대한 저항의 진지라고 여겨왔던 대학 사회의 굳건했던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 타개하려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신세대 논쟁에 참여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책무와 정치적

9) 박재홍(1994; 294~295쪽)은 신세대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된 이유를 “92년 말 대선을 전후하여 김영삼 정부가 사용한 신한국, 신경제, 신농정 등의 ‘신’자가 대중적 호소력을 얻었던 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0) 신세대는 물론 X세대 모두 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에 따라 그 대상과 의미가 쉽게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995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YWC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X세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학생은 35%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대학생들은 13%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같은 해 10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쌍용제지의 사내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신세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20대 직원의 75.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 경우 X세대와 신세대는 좀처럼 혼용할 수 없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저항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극복방안을 내어 놓는 것이 목표였다. 1993년에 소위 ‘주요 대학’이었던 연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운동권이 비운동권에게 패배하였던 사건은 80년대 내내 학생운동 진영을 지지해왔던 청년들과는 매우 다른 정체성을 지닌 대학생들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며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¹¹⁾ 이 사건은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등 당시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도 일제히 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미 대학 문화는 80년대와의 분기점을 돌아 나오고 있거나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고 대학이라는 영역을 진보적인 공간으로 지키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흐름 자체를 막아내거나 경로를 변경시켜내기 위한 문화 전략의 수정, 수립이 필요했다. 대학가에서 신세대론을 거론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의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과거를 계승하려는 성격이 강한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신세대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던 이화여대 학보사의 편집국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 “신세대 기사와 심포지엄에 관심을 보인 학생들은 학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운동권 성향의 학생들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¹²⁾ 대중운동을 표방하던 이들에게 대학사회의 넓어진 정서적 스펙트럼이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세상은 이 다양성을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표상시켰기 때문에 상당수 운동권 청년들의 고민은 신세대라는 말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대중운동의 세(勢)를 이어나가기 위한 몸부림, 합리화 이런 것과 닮아 있었으며 문화의 측면에서는 대중문화와 민중문화의 관념적 이분법의 구습(舊習) 아래 놓인 채 쇠퇴의 길을 걷던 대학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11) 연세대가 시작이었다면 이러한 흐름의 마침표격을 찍은 것은 1999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였는데 이 해에는 전국 대학 총학생회의 절반가량이 비운동권의 차지가 되었고 서울대의 경우도 비운동권이 처음으로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서울대 당선자의 핵심 구호는 반항끼 가득한 ‘좃같은 게 좃같은 거지’였고 뮤직비디오와 힙합 댄스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한편, 비속어를 전면에 내세운 당선자의 구호는 조PD의 대표적인 사회비판 노래 「Break Free」의 한 구절이었다.

12) 이재원(2010; 106~107쪽) 참조

3. 노래를 통한 청년들의 대응

대학 문화는 이상과 같은 변화와 흐름 속에서 90년대 들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80년대가 70년대를 단절하고 자신의 새로운 양식들을 만들어 냈던 것과 같이 90년대 역시 80년대와의 단절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려 했다. 80년대가 일구어낸 문화적 자산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로부터의 점진적인 결별이 시작되었고 90년대의 새로운 문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70년대 청년문화와의 재접속을 시도하였다. 청년들의 대응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했다. 첫 번째는 조직과 개인의 내부를 정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각성하고 단련된 주체가 되어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아예 80년대와 완전히 단절된 외부자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80년대 중반 이래 대학 문화를 주도해 왔던 노래 영역에서도 잘 드러났다.

3-1. 반성과 다짐, 내부의 정비

운동성이 점차 퇴조하던 대학가에서 당대 청년들과 그 선배들의 주요한 고민은 신세대로 타칭되는 학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내면서 근본적인 가치들을 변함없이 실현하고 계승해 내는 것이었다. 이들이 깊은 고민을 품는 이유는 학우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쓸렁한 집회장 그리고 무의미한 선전선동의 장으로, 친인척 학예회 장으로 전락해버린 황량한 관객석 때문이었지 자신들이 품어 왔던 어떤 신념이 크게 흔들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도 태도 변화의 주요한 동기가 되지는 못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무관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들이 집회장을 떠나는 현실을 후기 자본주의의 세련된 착취 방식이 작동한 결과로 이해했다. 이 당시 청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해법을 모색했던 대체적인 태도와 방식은 ‘선-내부정비, 후-외부확장’이었고 80년대의 가치 지향은 여전히 본질로서 유지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80년대식 운동을 답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의 글은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이들의 세

계관과 방식이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셋강을 살리자. 좋다. 그러나 먼저, 운동권부터 살리자. 그들이 셋강을 살릴 것이다. 경제를 살리자. 실업자를 살리자. 다 좋다. 하지만 먼저 운동권부터 살리자. 그들이 살림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옛 운동권, 그러니까 80년대의 영광을 복권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다. (중략) 그들을 대학의 제 1계급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공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¹³⁾

이러한 태도는 운동의 일환으로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대학 노래 모임들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딱히 다를 이유도 없었다. 80년대의 운동적 지향을 지켜내고자 하던 이들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떨어질 수 없는 길임을 인식하는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의 복원’¹⁴⁾이라 생각하면서 본질적 측면보다 방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가급적 과거의 입장 및 지향을 지켜낼 수 있으면서도 집 회장을 떠난 학우들을 보며 느꼈던 좌절감이나 서운함 등을 잊고 그들을 다시 학생운동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데에 필요한 음악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변화를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고 독려하는 내부 결속용이 많았다. 그리고 조금 먼 과거의 선배들처럼 언덕에 서서 노을 등을 응시하며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유형의 노래들도 심심치 않게 만들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이다 / 너무도 길었던 침묵을 열어 / 보아라 뒤로 남겨진 역사 / 그 길 그 위에 다시 섰다 / 변화의 작은 발걸음을 모아 / 우리 민중의 힘찬 함성들과 함께 / 동지여 저기 저 하늘 가득 / 투쟁의 노래를 // 절망만큼의 성숙 / 그 깊이만큼의 희망 / 이제 비로소 꿈과 현실이 / 부딪혀 굵은 눈물로 // 더 이상 기다릴 것은 없어 /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할 뿐 /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 다시 힘찬 발걸음¹⁵⁾

13) 이후편집부,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이후, 1998년, 2쪽.

14) 『내일로 트인 길 위에서』, 서울대학교 메아리 정기공연, 1993년 6월.

15) 「다시 힘찬 발걸음」, 1992년 연세대 노래패 올림페. 92년 이후 PD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애창되었다.

앞의 노래가 주체적 반성의 태도로부터 만들어진 내부를 향한 노래라면 다음의 노래는 80년대의 운동적 정서를 부당스러워하는 학우 혹은 신세대를 향한 소통의 의지를 담은 노래에 가깝다. 일군의 청년학생들은 변혁적 가치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투방문서’¹⁶⁾를 모사한 생경한 표현 방식이 대학 문예의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반성하면서 텍스트 자체를 새로운 질감으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다. 본질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세련되거나 친근한 화법의 텍스트를 만들어 신세대들에게 ‘트윙’하고 그것이 널리 ‘리트윙’되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물론 그를 통해 신세대들이 청년학생들의 변혁적 전망에 공감하고 운동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벌이는 행동이었으며 사실 자신의 감성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기란 놈은 도둑놈이다 /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 자기가 피를 안 만들고 / 사람이 모이둔 것을 훔쳐가 / 한번만 먹어도 도둑놈인데 / 배터지게 먹는 나쁜 놈 모기 / 모기란 놈은 도둑놈이다 / 모기란 놈은 완전한 도둑놈이다 //(ment) 사람 중에서도 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¹⁷⁾

이처럼 노랫말에는 다소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음악적 표현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록음악의 도입이 이 즈음이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스스로 ‘민중록그룹’이라는 다소 어색한 이름을 표방했던 천지인¹⁸⁾이라는 밴드의 활약 덕분이었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새로운 노래들의 형식은 대체적으

16) 정치조직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국면마다 작성되는 투쟁 방향 지침서를 말한다. ‘투방문서’에 근거한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비판하한 1991년의 「현실주의의 좌표」 문건은 문예동아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학생노동문학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작성한 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겨 있었다. “(전략)...연행장르의 경우 그 폐해는 극심하여 ‘투방문서’ 자체를 서사적 구조로 옮겨놓는 양상이 드러난다. 심지어 공연의 소재까지도 ‘투방문서’에서 찾는 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이 그 공연’이라는 상투성과 도식성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후략)”

17) 「모기, 1992년 효성여대 새벽을여는소리. 대학기에 널리 유포되지는 못한 노래였다. 각주 16)에 등장하는 학생노동문학위원회가 발행했던 기관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18) 1992년 9월 좋은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록그룹을 만들었다가 뒤에 천지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듬해 4월에 단독 콘서트 형식의 데뷔 무대를 가졌다. 「청계천 8가」, 「열사가 전사에게」 등의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로 과거와의 유사한 정서적 계보 속에 놓여 있었다. 음악적 형식이 꽃다지나 노찾사, 새벽 등의 전문 집단들이 연행하던 스타일의 어느 것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그 전이나 이후나 한동안은 마찬가지였다. 주로 달라진 것은 구호 및 결단 중심의 비장한 노래보다 성찰조의 부드러운 노래들이 점차 우세해졌다는 것인데 학우들의 개인적 공간에서도 진보적인 노래가 일상적으로 재생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제 노래 창작은 ‘휘날리는 깃발과 더불어 삶의 풍부한 정서 속에서 그 향기를 내뿜기 위한 작업’¹⁹⁾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청년들이 정치적 쟁점이나 집회 현장에 한정된 고민을 벗어나 자아 및 주변의 일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의식을 확장하면서 오래도록 외면해왔던 70년대 청년문화의 노래들을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시대와의 불화를 겪는 청년들의 음악적 표상이었던 김민기의 노래는 ‘고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으나 결국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나오되고 만’²⁰⁾ 노래로 평가절하 되면서 80년대 내내 대학가에서 소멸의 길을 걷다가 90년대 중반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비로소 되살아나게 되었다. 지식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87년 이래 공연장에서 김민기의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던 서울대 메아리는 94년 공연에서 ‘대학 노래패가 앞으로 맡아야 할 문예적 실천을 위한 참된 시작을 지금 해보고자’²¹⁾ 「새벽길」과 「공장의 불빛」을 자신들의 무대로 참으로 오랜만에 불러들였다.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지만 자신들의 선전을 들어줄 더 많은 관객을 불러와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 속에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혹은 대중적인 공간으로 쉼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3-2. 록음악, 외부로의 확장

비슷한 시기, 대학 바깥의 음악사회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거 청년학생들에게 상업주의적이거나 향락적인 것으로 비판받던

19) 『내일로 트인 길 위에서』, 서울대 메아리 정기공연, 1993년 6월.

20) 서울대 메아리, 『메아리 9집』, 새길출판사, 1989년, 99~100쪽.

21) 『상어가 사람이라면』, 서울대 메아리 신입생 환영공연, 1994년 3월.

록음악이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록음악은 청년학생들의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적으로 분출되고 있었으며, 특히 선배급 청년들의 일부는 록음악 중심의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솔직한 토로를 담기에 적절한 양식이자 사색적인 면과 육감적인 면을 함께 탑재한 록음악은 다수의 청년학생과 다수의 신세대를 새로운 청년문화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롭게 형성되어 가던 대학 문화가 록음악을 주요한 거처로 삼을 수 있었던 주요한 동력은 바로 ‘저항의 록음악’이라는 서사였다. 책으로 따지자면 1993년 7월에 출간된 서동진의 『록, 젊음의 반란』을 필두로 하여 그해 말 존레논의 일대기를 다룬 신현준의 『이미진, 세상으로 만든 노래』 등이 추가로 출판되면서 그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두 저자는 전형적인 선배급 청년학생 출신이었지만 노래를 만들고 부르던 당대 대학 내의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외부자나 마찬가지로 보였다. 1994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신촌의 카페 빵, 홍대의 클럽 드림²²⁾이 문을 여는 등 외부의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가시화되고 저항의 록음악이라는 서사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개인주의적이고 개성적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시대의식을 지녔던 일군의 신세대들이 이러한 흐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한편으로는 저항이라는 말이 대학 바깥, 그것도 상업적인 공간 혹은 소비의 공간에서 새로운 동지를 틀은 것이기도 했는데 이는 과거의 경험상 매우 낮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대학의 청년들이 평론, 홍대, 클럽 등 바깥 세계만을 통해 록음악으로의 취향을 확장해 나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취향의 확장을 이루고자 했던 내부자 록커들이 그들 앞에 포진하고 있었다. 앞에서 내부적 반성을 통해 가사가 변했다면 이 경우는 음악적 양식이 변한 것이고 80년대 내내 유지되었던 엄숙 취향의 금기도 어느 정도 넘어선 것이었다. 가장 유명한 노동가요 집단이었던 노동자노래단 출신 김성민이 주도하여 만든 록그룹 천지인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청년들에게

22) 드림을 중심으로 한 홍대의 라이브 클럽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5년 4월 록밴드 너바나의 리더 커트코베인 사망 1주기 기념 공연이었다.

이들은 일종의 ‘토종 밴드’였는데 1993년 4월 ‘민중음악의 신세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데뷔 공연을 치른 뒤 같은 해에 테이프를 발표하고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학가 행사 섭외 1순위의 민중가요 인기 그룹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인기와 수용은 사실 저항의 서사 이전에 그냥 구체적인 음악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물론 천지인은 록음악에 대해 스스로 부담을 안고 있었고 청년학생들의 오해를 두려워했다. 때문에 자신들의 음악에 대해 민중가요란 수식어를 전면에서 내걸었고 록음악 장르는 비트와 진솔함의 결합을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것이라고 먼저 주장해 두었다.²³⁾

천지인의 두 번째 앨범을 비롯하여 메이데이, 이스크라 등 노래운동 진영 기반의 록그룹들을 기획하며 록음악의 취향을 확장해 나간 음반 기획사 뮤직센터 21세기의 등장도 일종의 내부적 변화였다. 이 기획사는 이후 명칭을 Indie로 전환하고 라이브클럽 밴드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음반 제작에 나섰다. 이들은 초창기 클럽 밴드들의 음반을 조직적으로 다수 제작하며 언더그라운드 록밴드들의 음악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이른바 민중가요 음반의 핵심적인 유통 주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한 록/언더그라운드 계열의 음반들은 과거 민중가요가 유통되던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등의 유통망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서점에 진열된 록음악들이 이후 대학생들에게 ‘범(凡) 민중가요’ 계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러므로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홍대 앞의 클럽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미, 혹은 그와 동시에 대학생에는 록음악의 취향이 공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대학가에서 인기를 얻은 록커 윤도현의 경우는 좀 특별했다. 그의 노래는 같은 시기 다른 비판적 대중음악에 비해 딱히 더 진보적이거나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일찌감치 청년학생들의 음악적 파트너로 선택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외부로의 확장을 추진하면서도 외부자의 내부 진입은 쉽게 허용하지는 않는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같은 시기 강산이나 송시현, 신해철 등의 음악은 음악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많았음에도 외면했

23) 『93 민중가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天地人』, 천지인 데뷔공연, 1993년 4월 24~25일.

던 그들이 윤도현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마도 그가 노찾사와 같은 소속사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사의 계보에 근거하여 일종의 내부자로 바라본 것이다. 대학생 출신도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던 윤도현은 이즈음부터 록 음악을 통해 대학가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천지인 수준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사회과학서점 진열대의 한자리를 차지하며 「큰별은 없어」, 「가을 우체국 앞에서」와 같은 포크록 풍의 노래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고 대학가는 외부로의 경계를 계속 확장해 나갔다.

3-3. 새로운 청년의 등장

이 시기 서태지와 아이들 신드롬은 대학가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1992년에 등장한 그들은 우리나라 가요계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며 전사회적 영역에서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음악계의 신세대 대표로 칭해졌던 이들은 댄스음악에서 출발하여 록, 갱스터랩 등 사회비판적 성향이 강한 음악으로 점차 변화해 나갔는데 기본적으로는 록음악으로의 지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대학가에서 이들이 주목받은 이유는 음반이 거듭될수록 노랫말의 비판정신이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이었는데 같은 해에 데뷔한 「라구요」의 강산애, 「광야에서」, 「그루터기」 등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김광석 등의 활약과 더불어 청년학생들의 머리에 담겨 있던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경계선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93년에 출간되어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던 책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는 서문에서 서태지를 혁명가로까지 칭송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대의 청년학생과 비평계에 감성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태지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진실, 열정과 파워, 에너지와 스피드, 자유와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며 역사가이며 철학자이다. 또한 그는 인간최고의 과학기술을 훌륭히 다루고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는 과학자이다. 그는 기성세대의 상식, 도덕, 윤리, 법, 제도, 관습, 인습, 규칙, 약속을 파괴하는 아방가르드이며, 우아함, 환상, 과거, 향수, 집착, 명예, 치사함, 불신, 공포, 절망, 안주, 패배와 결별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는 혁명가이다.²⁴⁾

24) 송재희 외,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문화연구, 1993, 14쪽.

청년학생들이 자의식이 담긴 노래로 현실로부터 조금 후진할 때 그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강렬했던 서태지의 음악은 진보적 평론계를 자신의 우군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진보적 평론을 접하면서 운동의 태도와 지향을 조율해 나가던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록음악이나 대중음악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나갔다. 재미있는 것은 신세대로서 서태지의 음악을 좋아하던 팬덤의 일부가 서태지 음악의 변화를 따라 록의 취향을 체득하면서 사회 참여적 주체로 진화해 나간 것이다. 이들은 댄스음악을 좋아했던 그동안의 음악 청중들과 달리 수동적인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팬클럽 등의 조직을 통해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곳곳에서 ‘시대유감’의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이전의 세대들이 주로 대학이나 종교 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해갔다면 이들은 문화적 소비와 인기 연예인을 경유해서 청년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인데, 이 역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매우 낮은 풍경이었다.

이런 흐름과는 별도로 일찌감치 교문을 나섰던 대학 바깥의 대학생들이 홍대 앞 청년문화의 주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다. 이전까지 대학 내 민중문화적 흐름에 묻혀 비교적 자기 존재를 잘 드러내지 못했던 이들은 신촌, 홍대 권역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고유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청년학생들과는 비교적 분명하게 단절되는 집단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성격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대체적으로 대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다소 부유한 집안 출신이거나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홍대는 이 새로운 청년들의 활약을 통하여 청년 문화의 새 근거지로 뿌리를 내리고 바깥 세상에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이들이 고전적인 청년학생들에 의해 광장으로 인도되어야 할 객체로서 묘사되었다면 여기서는 주체로서의 청년이 되어 새로운 청년 공동체의 주역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 문화를 펼치는 과정에서 저항의 서사가 함께 묻어나는 일이 많았다. 단 순하게 록이 그들을 저항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컨대 이런 식의 태도들을 가진 신세대 청년들은 홍대 클럽가에 초기부터 존재했다.

핑크는 속으로 끓아 터진 질서를 바로잡는 음악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마음껏 소리쳐야 합니다. 록이 살아있는 사회는 부패하지 않으니까요.

- 최수환 (22. 서울대 섬유공학과).²⁵⁾

하지만 일견 같은 저항적 태도라 하더라도 이들과 학생운동 진영의 청년들은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그것은 노래를 창작함에 있어서 세상의 모순을 바라보는 시점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였다. 청년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모순은 대개 자신들 바깥의 이른바 민중들의 계급적 착취 혹은 분단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문제였으며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의 비전을 담거나 저항 과정에서 종종 요구되는 서로에 대한 위로를 노래에 담아내고자 했다.

벗이어 슬퍼마오 젖은 소매 마를 날 있으니 / 온누리 마른 풀 저마다 소리쳐
푸른 날 있으니 / 벗이어 슬퍼마오 내 항상 그대 곁에 있으니 / 이 시절 언제나
넉넉한 미소로 그대 곁에 있으니 / 앞서간 벗들의 피눈물 그리움 따라 / 기꺼이
내딛는 걸음 / 풀어진 그대의 머리띠 내 다시 묶어 주리니 / 벗이어 슬퍼 마오 그대
의 눈물 마르기 전에 / 이 아픔 모두어 흐느낌 모두어 / 밝아올 새 날 있으니²⁶⁾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홍대 앞의 청년들은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표현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계된 것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노래에 담으려 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보자면 청년들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았기에 그들의 노래 속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모순에 대한 불만, 삶의 막막함에 대한 불안 등이 담겨졌다. 특히 당시 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펑크록은 거대한 공동체적 전망이나 자의식 같은 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 음악 양식이었고 낙관을 노래하더라도 거꾸로 비판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깥을 향한 분노와 앞뒤 가리지 않는 질주에 매우 잘 어울리는 양식이었다. 이들은 펑크록이라는 그릇 속에, 의지할 수는 없지만 귀 기울일 만한 이야기들을 담았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색깔의 저항 혹은 반항적 정서가 담겨 있었다.

(전략) 닥쳐 닥쳐 닥쳐 닥치고 가만있어 / 우리는 달려야해 거짓에 싸워야해
말달리자 / 말달리자 말달리자 말달리자 말달리자 / 오 쓰레기 같은 지구상에서

25) 「엘로우키친 리더와의 인터뷰」, 『경향신문』, 1996.11.16.

26) 「그대 눈물 마르기 전에」, 『조국과 청춘 1집』, 서총련노래단 조국과청춘, 1992.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달리는 것 뿐이다 / 이봐, 거기 숨어있는 친구 / 어서
나오라구 (후략)²⁷⁾

반항 혹은 저항의 태도가 담긴 이들의 음악은 기존의 청년학생들과 연계 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연계 고리를 매개로 선배급 청년 필자들의 옹호론도 다양한 지면을 통하여 등장했다. 청년학생들은 자신들과 실천적으로 또 외양적으로 매우 다르긴 했지만 선배들이 옹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이들을 배척하지 않았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대학가에서는 ‘저항의 록음악’을 선전하는 강연이 곳곳에서 펼쳐졌고 그 연장선 속에서 청년학생들은 흥대 주변 록밴드들을 학내 광장으로 초대하여 낯설면서도 친숙한 공연 무대를 열어 주었다. 록음악을 구사하는 신세대 청년들 역시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엇갈리는 두 청년 집단은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관계로 만난 것이었는데 인디 혹은 독립이라는 이름 역시 이들 양자를 매개하는 좋은 알리바이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흥대의 청년들은 고전적인 청년의 계보로 수렴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는 학생운동의 주체들보다 먼저 청년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반면에 대학가의 청년들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소비 중심의 태도가 강화되고 내부적 생산력이 점차 저하됨에 따라 청년문화 담지자로서의 지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4. 청년들의 노래, 확장 혹은 순환

90년대를 지나는 동안 청년문화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소비문화가 확대되고 민주주의의 외형적 측면이 성숙함에 따라 청년들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정치적 참여에 대한 호소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90년대 후반 이래 현재

27) 「말달리자」, 『Our Nation 1』, 크라이넛&엘로우키친. 1996.

에 이르도록 대학가 청년들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표상해줄 대표적인 문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학가에는 80년대식의 청년문화를 간직한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고 특히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그들은 일시적으로 다시 성장했지만 그것이 문화적 흐름을 역류시킬 만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신 대학 바깥 청년들의 활동과 문화는 그 사이 과거에 비해 좀 더 활발해졌고 상대적으로 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총량으로는 80년대, 90년대 초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겠지만 이들은 80년대 내내 대학가의 울타리 내부에서 유지되었던 청년문화가 쇠퇴하는 동안 대학 바깥으로 나가 진지하거나 유쾌한 태도로 문화적 생산에 앞장섰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면서 좀 더 거대한 대중사회에서 소통되었고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널리 주목을 받고 의미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것도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어서 80년대의 유산과는 비교적 많은 부분을 단절하였지만 청년문화의 상징처럼 각인된 70년대의 청년문화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다. 80년대와 단절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구되었던 감성적인 접속뿐 아니라 연구자들과 평론가들이 우리나라 대중음악 계보 찾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70년대와의 접속이 정치적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정당성까지 확보해 나갔다. 대학가 청년들은 이론을 통해 70년대의 청년문화를 현재적 차원에서도 긍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적 생산자가 된 청년들은 자신들의 이상으로 70년대 청년문화의 이상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흔해졌으며 70년대의 스타일을 새롭게 재현해 나갔다. 과거 펑크를 통해 분출되던 청년들의 저항적 태도는 70년대 청년들의 정서와 만나 새로운 방식의 음악적 태도로 또다른 가치를 쳐 나가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들어 홍대식 청년문화를 개척한 펑크 다음 세대의 청년들, 예컨대 장기하와 외골들이나 시와, 브로콜리너마저 등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적어도 노래의 영역에서 보자면, 80년대 이래 별다른 관심이 주어지지 않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관심을 받기 시작한 ‘청년문화’는 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흐름마저도 어찌 보면 70년대의 청년문화가 재현되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서울대 메아리, 『메아리 공연 책자』, 1984~1998
홍대 소리얼, 『소리얼 공연 책자』, 1990~1998
천지인, 『천지인 공연 책자』, 1993.
학생노동문학위원회, 「현실주의의 좌표」, 학생노동문학위원회 여름캠프자료, 1991.

2. 논문과 단행본

- 송재희 외,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문화연구, 1993.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이영미, 『서태지와 꽃다지』, 한울, 1999.
이후편집부,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이후, 1998.
김성기·심광현·원용진·조항제·김창남·임성희, 「좌담: 문화연구의 좌표와 전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1995년. 115~162쪽.
강내희, 『문화연대와 1990년대 문화운동』,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1』, 문화과학사, 2003.
박재홍, 「신세대·소비문화전개와 탈정치화의 맥락에서」, 『경제와사회』 제23호, 1994. 293~300쪽.
방하남, 「청소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구조」, 『한국인구학』 제22권 1호, 한국인구학회, 1999. 5~36쪽.
백옥인, 「한국 소비사회 형성과 정보사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통권 제77호, 2008. 199~225쪽.
이기훈, 「"청년", 갈 곳을 잃다」, 『역사비평』 통권 76호, 역사비평사, 2006. 359~386쪽.
이수강, 「'세대론'과 '지식인 불신'의 틈바구니에서」, 『당대비평』 통권 제15호, 생각의나무, 2001. 219~232쪽.
이수강, 「대학의 '1990년대'는 언제까지 일까: 대학 사회의 변화에 대한 단상」, 『당대비평』 통권 제10호, 생각의나무, 2000. 364~379쪽.
이재원, 『時代遺憾』, 1996년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 신세대, 서태지, X세대, 『문화과학』 제 62호, 2010. 92~112쪽.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사회』 14권 3호, 2006. 73~105쪽.
김영희, 「제1공화국 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 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12, 306-423쪽.

3. 웹사이트

- <http://dna.naver.com> - 네이버 옛날뉴스 검색
www.kinds.or.kr - 미디어가온
www.maniadb.com - 매니아데이터

Abstract

Youth and the songs of the 1990s - the expansion and circulation -

Kim, Byung-O

The culture of young people, mainly in the universities, gradually started to decline in the 1990s unlike 1980's. It's not a matter of choice but inevitable flow. The changes should be accompanied to some extent by other changes of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Youth cultural activists tried hard to find new ways for overcoming the declining tendency. New generation issue entered the stage just at that time. Through the new generation phenomena, youth had changed their identity from the subject of production and protest to the symbol of consumption.

In the song of youth culture, progression of these flows was the same. Young people would serve to maintain and expand the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song. They have created a new song and accepted a new taste of music in the changing times. Furthermore they embraced the consumption of a particular music as the protestant behaviors and a part of cultural construction. In the process, the young people and their songs being on the outside of the university culture in the 1980's have grown up to be the new symbol of youth culture. These new tastes and styles were connected to 1970's. (Key words : young people, youth culture, counter culture, new generation, change of taste, rock music)

위 논문은 2010년 10월 23일 제35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획논문으로 발표되었 으며, 2010년 10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